

* 마을사 *

와산리·瓦山里

도고면의 한 마을로 안피미와 지새울이라는 두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기와집이 많아 기와 와자를 써 와산리라 하는 이 마을엔 오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를 이루며, 가구수는 79가구가 모여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와산리는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봉산리, 와동 일부와 아산군 신흥면 밀두리를 병합하여 와산리라 해서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가 1983년에 안피미와 지새울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와산리 위치도>



☒ 안피미, 지새울마을 (와산리)

와산 1리는 안피리 마을이라 하며, 봉산 밑에 있는 마을로 옛날엔 봉산이라 했으며, 지금은 안피미라 불리어지는데, 안피미 마을은 본래 꿩치자를 써서 '치매'라 불렀으나 변하여 치매-치미-피미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며 신작로 안쪽이라 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설도 있으며, 마을의 지명과 관련된 전설들이 많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와산 2리는 지새울과 토미마을로 구분 되며, 지새울은 옛날에 기와집이 있었다하여 지새울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토미 마을은 지새울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엔 토미라 불리워졌으나 새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을 샘말이라 부르고 있으며, 최근 통신연수원이 건립되어 주민들은 마을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조사당시 와산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안피미 마을은 위도 36-45-40, 경도 127-55-3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신창 휴게소에서 도고쪽으로 800m 떨어진 곳의 도로 위쪽에 위치한다.

지새울 마을은 위도 36-45-50, 경도 127-54-5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를 중심으로 안피미 반대편의 마을로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2) 현황

안피미 마을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84명, 여자 77명으로 총 161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49호이고, 농업에 87.6%가 종사하고 있으며 12.4%는 축산업에 종사하며, 대부분이 소나 젖소를 키우고 사슴을 키우는 집이 한 집 있다.

지새울 마을의 인구분포는 남자 26명, 여자 53명으로 총 99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며, 호구수는 30호로 95%가 농사를 짓고 있고 나머지 5%는 축산업이다.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안피미 마을	161명	84명	77명
지새울 마을	99명	46명	53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안피미 마을	100%	87.6%	12.4%

지새울 마을	100%	95%	5%
--------	------	-----	----

안피미 마을의 농경지는 논 21.5ha, 밭 6ha로 밭이 매우 적고,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관리기등 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 시설이 구비된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고 농약기구도 보관되어 있다.

지새울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보면 논 20ha, 밭 9.3ha로 이 마을 역시 밭이 적고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건조기, 이앙기, 관리기, 콤바인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 시설이 구비된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고 농약기구도 보관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안피미 마을	27.5ha	21.5ha	6ha
지새울 마을	29.3ha	20ha	9.3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안피미 마을	1개소	1개소	-
지새울 마을	1개소	1개소	-

안피미 마을은 오씨 40%, 서씨 8%, 김씨 14%, 이씨 8%, 조씨 6%등 오씨가 가장 많고, 연령층은 젊은층이 아주 두텁게 나온 반면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60대가 적게 나타났다.

지새울 마을은 이 마을 역시 오씨가 57%로 가장 많고 김씨, 이씨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은 30대가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거의 평균화된 수준이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오씨	서씨	김씨	이씨	조씨	기타
안피미 마을	49호	20호	4호	7호	4호	3호	11호
지새울 마을	30호	17호	-	2호	1호	-	10호

- 최고령자

안피미 마을의 최고령자는 정 길례씨로 86세이시고, 지새울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기석 할머니는 82세이시다.

3) 자연경관

안피미 마을은 수려한 봉산이 솟아 있고 옆으로는 비파산이 둘러 있어 아늑하며, 전체적인 지형은 오르막형이며, 가운데 큰 길 양쪽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고, 큰 길 왼쪽 집들 옆에는 수박밭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향산리와 접해 있다.

지새울 마을은 신창면과 도고면의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이며, 최근 통신 연수원 건립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며, 집들이 산속에 숨어 있어 마을입구에서 보면 몇채 안되어 보이며, 지새울 뒤쪽으로는 마을에서 제일 높은 번갯산이 있고, 이 산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꼭대기에는 큰 바위가 많지만, 산 중턱이나 마을 주위에는 바위는 고사하고, 잔돌의 조각들도 별로 없다. 마을 입구를 들어서면 온 산들이 병풍같이 둘러 싸인 가운데 움푹 들어 앉은 마을의 제일 정면으로 보이며, 뒤로는 번갯산이 웅장하게 마을을 내려보고 있

다.

4) 마을변천과정

안피미와 지새울 마을은 본래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봉산리, 와동 일부와 아산군 신흥면 밀두리를 병합하여 와산리라 해서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 되었고 그후 1983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를 중심으로 윗쪽을 안피미로와 지새울로 분할되었다.

5) 입 향

원래 해주 오씨가 현 와산리 2리인 지새울에 정착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안피미로 옮겨 가서 지새울 오씨라고도 했었다. 오씨가 지새울에 있을 당시에 안피미 쪽엔 의자왕 후손인 부여 서씨들이 정착하고 있었다한다. 해주 오씨는 현재 뒷산에 12대 산소가 모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360년전에 형성된 것 같고, 지금은 다른 성씨들도 많이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대부분 해주 오씨들이 많다.

6) 지 명

十 안피미 마을의 지명

·안피미 : 봉산 밑에 있는 마을로 뒤에 수려한 봉산이 솟아 있고 옆으로 비파산이 둘러 있어서 매우 아늑함. 본래는 軼치자를 써서 "치매"라 불렀으나 변하여 치매-치미-피미로 불리게 되었음.

·한티고개 : 신창과의 경계에 있는 고개. 옛날엔 이 고개에 도둑이나 강도가 많았다고 했음. 그래서 한밤중에 아주머니가 아픈 아기를 업고 지나가는 차를 간신히 잡아 타고 병원에 가려 하면 차가 멈춤과 동시에 강도가 어디선가 나타나 도적질을 해갔다고 함.

·수틀고개 : 향산리와 경계에 있는 고개.

·망턱 : 안피미 북동쪽에 있으며, 안피미의 백호가 되는 곳. 옛날 난리가 났을 때 망을 보던 곳으로 이곳이 낮아지면, 안피미가 쇠약해진 다하여 가끔 흉으로 보충하기도 하였음.

·질마고개 : 소의 질마와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

·비울띠기 : 질마고개 밑의 세 갈래 길을 말함.

·홍수래 봉 : 와산리 뒤쪽에 펼쳐진 산. 봉산이라고 부르고 있음. 산의 봉우리가 일곱개라서 칠성봉이라고도 하며, 비파산이라고도 하며, 이 산은 대대로 내려오는 명산으로 봉황모양이고 일곱개봉 중 한갓골, 참새골, 무텃골이라는 세 개의 골짜기만 구전되어 내려옴.

·한갓골(한절골) : 봉산의 한 골짜기로 냉전토로 전해내려옴.

·참새골 : 옛날의 약수터 자리.

·무텃골 : 안피미 서쪽의 골짜기로 다른곳보다 특히 물이 참.

·통미(토미) : 안피미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으로 산이 작고 둥글다하여 동미라 하였는데 변하여 통미라 부르게 되었음.

·오줌터 : 오줌터라고도 부르는 골짜기. 이 오줌터엔 높이 2m에 오줌자국 같이 패인 자국이 있는 선바위가 있었는데, 옛날 한 장사가 마을 타고 선바위로 뿔 때 말이 오줌을 누었다고 전해 내려옴. 그런데 오래전 한 무당이 꿈을 꾸고 몇 년간 돌을 찾아 다니다가 이들을 캐갔다고 함.

·선바위 : 오줌터에 서 있는 바위. 높이 2m가 되며, 오줌 자국 같이 패었는데 옛날 장사가 말을 타고 자라바위로 뿔 때, 말이 오줌을 누었다 함.

·바람매 : 오줌터 북동쪽의 바람이 세서 붙여진 골짜기.

·상나무배기 : 바람매 뒤에 향나무가 있는 곳. 향나무를 사투리로 상나무라 함.

·매방아골 : 오줌터 옆의 골짜기. 맷골이라고도 함.

·큰골 : 안피미 뒤에 있는 골짜기

·통매 : 무텃골 옆에 있는 골짜기

·앞자리 : 안피미 앞에 있는 들.

十 지새울 마을의 지명

- 자라실 : 지새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를 낀 산의 형태가 뱀처럼 생겼고, 그곳에서 뱀이 두꺼비를 몰아서 그 곳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설이 있음.
- 자라바위 : 자라실에 있는 둥글고 큰 바위가 자라모양인 바위.
- 가жат골 : 자라실에서 넘어가는 곳에 칩뿌리가 좋다는 골짜기.
- 부영재산 : 부영이를 닮아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고, 부영이가 그 산에 앉아서 그렇다는 설도 있으며, 옛날 전쟁때는 이 산에 돌로 성을 쌓았고, 터가 좋아서 전쟁터로도 유명했음.
- 안 산 : 양지뜸이라고도 불려지는 작은 산.
- 감초골 : 감초가 많이 난다 하여 감초골.
- 구렁목 : 부영재산 옆의 낮은 산.
- 번갯산 : 번개를 맞았던 산으로 산모양이 번개같이 생겼다하여 불리워짐.
- 재새울 : 안피미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기와집이 있었다하여 지새울이라 불렀음.
- 비파산 : 봉산 왼쪽 기슭에 있는 산. 모양이 비파를 닮아 놓은 것 같음.
- 백자요지 : 지새울 마을의 뒷산에 있음. 백자편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음.

7) 전 설

十 수틀고개의 유래(안피미 마을)

옛날부터 이 고개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지나가려면 모래를 마구 끼었는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이 장난하는지는 모르며, 마을 사람들은 짐승 아니면 도깨비라 믿고 있다.

十 한жат골의 유래

옛날 병원이 없을 당시 이 골짜기에서 씻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다. 이곳의 물은 들 속에서 나오는 물로서 약이 없던 그 당시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十 참새골의 유래

지금은 약수터가 폐장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느 양가집 규수가 병이 걸렸는데 이 마을을 지나가다 약수터에 잠깐 들렀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규수가 갑자기 죽어서 이 약수터는 그 후로 폐장이 되었다고 전해온다.

十 선바위에 관한 전설

와산리 오줌터에 높이 2m 가량 되고 오줌자국 같이 패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선바위라 부른다. 그런데 이 바위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는 내용은 이러하다.

『옛날 어느 임금 때 이웃나라에 우리나라의 특산물을 바쳐야 하는 때가 있었다. 그때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날이 저물어 산속에서 하룻밤을 지새게 되었다. 그때 그 무리를 이끌던 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용맹하기로 이름이 나 있어 어느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임금도 그 사실을 알고 그를 시켜 험한 길에 무사히 특산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맡겨 두었던 것이다. 그는 산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 낭패라 생각하여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산 속에서 하룻밤을 쉬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엔 산적의 무리가 나타나서 약탈을 하려 했다. 그러나 산적의 두목인 듯한 자도 이 장수의 얼굴을 보자 선뜻 달려들지 못했다. 그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산적 두목은 모두가 다 싸우느니 그 장수와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쪽에 물건을 차지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싸움이 시작되었다. 둘다 말을 타고 칼을 하나씩 들고서는 불꽃이 될 정도로 치열한 승부를 겨루었다. 그러나, 양쪽이 다 만만치 않은 상대라서 싸움은 새벽녘까지도 끝이 나지 않았다. 이 바위 저 바위를 옮겨다니면서 나는 듯 재빨랐다. 그런데 그때 장수가 탄 말이 자라 모양으로 생긴 바위에 오줌을 누었는데 그 줄기가 어찌나 센지 바위가 패일 정도였다. 그 두목은 이를 보고 도망갔으나 결국 달려드는 말한테 받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이 오줌을 누었다는 바위는 선바위라 하여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十 구령목의 전설 (지새울 마을)

옛날 구령목 옆에 부자가 살았었다. 그 집에는 하인들이 있었는데, 손이 짓무르는 병이 있었다. 어느날 스님이 와서 시주를 얻어가면서 그 손이 나으려면 옆에 있는 구령목의 산목을 자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산목을 잘랐더니 그 곳에서 길이 나고 하인들의 손이 다 나왔다. 그런데, 그 일과 동시에 부자집은 망했다고 한다.

十 번갯산의 전설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 그리고 어떤 큰 일이 있으면 마을에서 제일 높은 번갯산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 산에는 옛날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속에서 떨다가 마침내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서 그 신을 달랬다. 그런데 어느날 비의 신과 번개의 신이 싸움을 하게 되었다. 비와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데 느닷없이 천둥의 호통으로 끝이 났지만, 이것을 계기로 비와 천둥과 번개는 같이 있다는 것이다. 그 때 싸운 흔적으로 산꼭대기에 큰 바위들이 쌓여 있는데, 번개를 맞아 산이 번개 모양으로 되어 번갯산이라 불리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十 자라바위 전설

평태가 둥글고 자라모양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다. 옛날 하늘나라에 옥황상제의 딸인 여옥이란 처녀와 길재라는 총각이 있었다. 둘은 남모르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 사실을 안 옥황상제는 노하여 둘을 하늘 나라에서 추방하였다. 그리고 별로써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자는 자라가 되어서 인간 세상에 가되 낮에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고, 남자에게는 말이 되어서 또한 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만약, 밤에 자라로 된 너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이면 그 자리에서 돌이 되고 말 것이라 말했다. 또한 3년 동안 너의 모습을 인간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길재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늘 나라에 와서 살 수 있다고 옥황상제는 말했다. 인간세상에 내려와 여옥이는 자라가 되고, 길재는 말이 되었다. 길재는 씩씩하게 잘 달리는 훌륭한 영마였다.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장수와 만나게 되었다. 처녀의 모습은 단번에 장군의 눈에 들어왔고, 둘은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군이 출전하는 전쟁마다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다. 여옥과 길재의 덕이었다. 나라는 온통 장군의 말과 아내에 관한 소문으로 자자했다. 어느덧 장군의 승리로써 모든 전쟁이 끝나자 장수는 집에서 여옥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사정을 모르는 장군은 여옥에게 청혼을 했다. 그렇지만, 아직 3년이란 세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밤에는 자라로 되어야 하는 여옥에게는 당황할 일이었다. 밤마다 여옥은 뒷산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숨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장수가 그의 뒤를 밟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자라 하나가 기어가고 있는데 아닌가. 장군은 너무도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다. 그 순간 자라는 눈물을 흘리며, 돌로 변한 것이다. 여옥이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본 길재는 슬펐다. 자기도 다시는 하늘 나라에 올라갈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이 된 길재는 밤새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여옥이가 돌로 된 것을 슬퍼했고, 장군 또한 슬퍼했다. 옥황상제는 여옥과 길재를 불쌍히 여겼지만 다시 하늘 나라로 오게 하지 않았다. 장군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고, 한탄하며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 마을을 자라실이라 하며, 자라실에 있는 이 자라바위에는 여옥이를 찾기 위해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발굽에 밝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 아름답고 서글픈 전설이 내려온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안피미 마을은 정월 대보름에 마을 행사로 윷놀이를 하여 마을 단합을 하고 있다. 지새울 마을은 음력으로 12월 31일에 산제사와 노신제를 지내는데 봉산 선황당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산제사를 지내고 옛날에는 삼일동안 낫선 사람들이 마을에 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하루동안 외출을 금하며, 담배 및 술을 금하고 몸을 정결히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10) 종교단체

안피미 마을은 종교 단체가 없다.

지새울 마을에는 기독교 단체로 명성교회가 신도수 120여명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로는

자운암이 신도수 100여명에 이른다.

11) 공장현황

안피미 마을에 덕진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다.

지새울 마을은 통신수련원이 있어 지가상승에 많은 발전을 했다.

12) 마을의 특성

안피미 마을은 유난히 지명에 대한 전설이 많이 전해내려 오는 마을로서 신창면과 도고면의 경계이며, 주위에 산이 많아 아늑하고 정겨운 마을이며, 오씨가 유난히 많은 마을이다.

지새울 마을은 통신수련원이 들어서면서 지가상승에 발전을 가져 왔으며, 신창면과 도고면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로 북쪽에는 화려한 봉산이 있으며, 유난히 오씨들이 주민의 반 정도에 이르는 전형적인 시골마을로서 산세가 수려한다.